

#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lf-Differentiation, Conflict Tactics Behavior,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전북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 조은경\*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조교수 정혜정

Dept. of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Cho, Eun-Kyoung

Division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 Prof. : Chung, Hye-Jeong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self-differentiation with conflict tactics behavior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Specifically,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conflict tactics behavior and of marital adjustment according to the levels of self-differentiation.

The participants of the present study were 332 married men and 355 women who lived in Chonlabuk-Do province.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total self-differentiation between men and wome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s of sexually coercive conflict tactics behavior and marital adjustment between sexes.

Second, results of difference analyse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conflict tactics behaviors and of marital adjustment according to levels of self-differentiation.

Finally, in the case of married men and women, the variable significantly affecting the conflict tactics behavior and the marital adjustment was the levels of self-differentiation.

Based on the results as above, this research discussed the issue of the concept of self-differentiation applied to Korean situation, and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family life education for decreasing conflict between spouses and for enhancing marital relationship.

---

▲ 주요어(Key Words) :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 갈등대처행동(conflict tactics behavior),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결혼안정성(marital stability)

## 1. 서론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가족원간의 문제와 갈등의 표면

화나 심화, 가족의 해체 등 가정의 안정을 위협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위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환경 속

---

\* 주저자 : 조은경(E-mail : ekchos@hanmail.net)

에서 자라난 두 남녀가 공동생활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의 불화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거나 바람직한 갈등 대처 행동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별거나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혼인 건수는 1991년 416.9천 쌍에서 2000년 334천 쌍으로 줄어든 반면 연간 이혼 건수는 1991년 49.2천 쌍에서 2000년 120천 쌍으로 2.5배 정도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1). 이는 혼인에 대한 이혼율이 36%임을 나타내는데 점차 부부 갈등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이러한 부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원만한 결혼 적응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처럼 원만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에 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동일한 갈등 상황이라도 부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인지하는 정도,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부부가 각각 자신의 욕구, 가치, 태도, 믿음에 따라 상황과 사실을 다르게 인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기제가 되는 개인의 자아분화 정도에 따라 다르다(이현주, 1996; 한미향, 2000)고 볼 수 있다. 자아분화란 문제해결 능력, 적응력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부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과 그 스트레스의 정도,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Bowen에 의하면 자아분화가 잘된 사람은 잘 정의된 자아를 유지해 가고 확고한 자아정체감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기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긴장 상태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대처하며 생활에 대하여 질서가 있으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정서와 지성이 융합되어 그의 감정은 주위사람에 의해 쉽게 지배가 되며 적응력과 융통성이 부족하여 역기능에 빠지는 어려움을 갖는다고 한다.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경우 결혼 후 부부간 정서적 융합을 증대시켜 배우자들 사이에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고, 한 배우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역기능 증상이 나타나며, 결혼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정서적 이혼 상태에까지 도달하게 되므로 부부의 결혼 적응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Bowen의 자아분화 수준을 타당하게 측정하여 가족 체계의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아분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인 기혼남녀는 한 가정의 주역으로서 그들의 정신적 건강과 결혼 적응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족원의 인성발달과 삶의 질에 결정적

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여파가 사회 전체에 미쳐 전반적인 사회의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자아분화는 남성적 가치인 독립성, 자율성 등과 관련되지만 여성적 가치인 관계성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Gilligan(1982)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 보살핌과 애착, 상호의존성 같은 관계성이 중시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독립성과 자주성이 중시되며 분화와 자율성이 남성발달의 주요한 가치로 여겨진다고 하여 사회화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이렇듯 관계성과 분화에 대해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자아분화 자체가 남녀의 차이를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자아분화에 따른 남녀의 가족생활 적응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Bowen 이론의 핵심인 자아분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석봉(1989), 전춘애(1994), 최혜숙(1992) 등이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척도들은 Bowen 가족치료이론의 8가지 주요 개념들을 서로 연동적이거나 중복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측정된 것으로,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의 두가지 축, 즉 감정과 이성 차원 및 나와 타인의 분리 차원을 직접적으로 측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5년 미국에서 Skowron이 자아분화 척도인 DSI 2 (Differentiation of Self Index 2)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아분화의 개인적 차원인 감정과 이성이 분화된 정도와 대인관계적 차원인 나와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여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된 척도로 사료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kowron(1995)의 자아분화 척도인 DSI 2가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Skowron의 자아분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적 반응과 자기 입장,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을 통해 자아분화를 정의하고 기혼남녀의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자아분화의 수준을 남녀로 구분하여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서구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아분화의 개념이 여전히 가족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며,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 적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자아분화 수준이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분화의 개념

자아분화는 Bowen(1976)의 가족체계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Bowen의 가족치료에서 바로 치료의 목표이며 성장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개인의 자아분화는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Skowron, 1995). 개인의 심리내적 차원의 개념으로서 자아분화를 보면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신중하며, 융통성이 있고, 사려가 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반면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융합의 정도가 높은 사람으로서 감정의 세계에 쉽게 빠져들거나, 정서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객관성, 지적 추리, 독립적 목표 지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역기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대인관계적 차원의 개념으로 분화는 '가족관계 안에서 그리고 가족이외의 관계에서' 자아를 견실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자신에 대한 승인, 사랑, 평화스러운 상태 그리고 결속을 얻기 위해서 본래 자기 자신의 통합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편안하게 자기 입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결속 세력이 사고와 판단을 지배하여, 가짜 자아(pseudo-self :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쉽게 변화하는 자아)가 발달되어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자주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타인의 견해에 심하게 의존하고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을 피하는데 급급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반대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진짜 자아(solid-self : 주위의 정서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성 있는 자아)가 발달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명확하게 사고하며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서 타인의 가치나 신념을 존중하면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다(이장만, 1992). 그러므로, 분화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자제력이 있고 객관적이다. 반면,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율성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과 융합되려는 경향

이 있다. 정서와 지성 사이의 융합이 클수록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융합되기 쉽다. 정서적 융합은 분리와 반대개념이다. 융합된 사람은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고수하지 못하며,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개인이 나타내는 부적응 행동이나 증상은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owen의 이론에 의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적인 세계에 살고, 외부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의미 있는 지속적인 관계능력이 결핍되어 있기에 부부관계 및 가족, 사회적 관계에서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한다.

### 2. 갈등 대처 행동의 개념

갈등 대처 행동이란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이다. 부부간의 갈등은 결혼 생활 속에 잔재해 있던 어려움이 표출되는 결과가 되어 지금까지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여 부부관계에서 긴장을 제거시켜 주고 상호이해를 증가시켜 준다(Scanzoni, 1979)는 긍정적인 측면과 갈등이 신체적, 정신적 부적응을 일으키며 관계에 불신 및 거리감을 주는 부정적인 측면의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즉 갈등이 심한 부부는 갈등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갈등 해결을 위해 대처하는 방법이 부적당하기 때문인 것이다(Straus, 1979).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은 부부간에 갈등이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부부 갈등에 대한 대처 행동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갈등 대처 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건설적, 수동적, 회피, 신체적 폭력으로 분류한 연구자(이영숙, 1986)도 있고, 외부도움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표출, 행동표출, 회피로 분류한 연구자(최규련, 1994)도 있다.

한편 Straus(1979)는 갈등 대처 행동으로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해결할 정보 등을 이용하는 이성적 해결과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언어적 공격 그리고 육체적 힘이나 완력을 이용하는 신체적 폭력의 3가지로 분류하였으나, 1996년 CTS 2를 개발하여, 협상,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강압, 상해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갈등 대처 행동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측정되어 왔는데, 자아분화 개념은 갈등에 이성적으로 대처하느냐 감정적으로 대처하느냐와 연관되며, 갈등 해결시 본인의 입장에 기초하여 대처하는지 타인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는가와 연관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Straus 등(1996)의 갈등 대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을 긍정적 대처 행동으로,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강압을 부정적 대처 행동으로 간주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 3. 결혼 적응의 개념

결혼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주제는 결혼성공, 적응, 행복, 만족, 일치, 동료감, 조화 등의 용어로 명명되어 온 개념이다(Lewis & Spanier, 1979). 이렇게 결혼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개념은 다양한데, Lewis와 Spanier는 결혼생활의 질은 적응과 만족을 더 넓고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고, 결혼 적응의 개념은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잘 적응하는 부부는 배우자가 서로 자주 상호작용하고 중요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 거의 불일치가 없으며 솔직하게 서로에 대해 대화하며 또한 서로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불일치를 해결하며(Spanier, 1976) 결혼을 지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결혼 적응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학자들에 따라 정의는 각각 상이하다. 학자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크게 주관적, 객관적인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되는데,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정승혜(1988)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하나는 태도적 혹은 주관적 측정이란 보다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과의 일치 정도에 대한 측정 혹은 개인의 기대와 결혼 만족도 사이의 비교이며, 또 하나는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라고 하였다. 윤경자(1997)는 결혼만족을 '한 개인이 자신의 결혼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결혼만족도는 아주 만족에서부터 아주 불행함에 이르는 연속선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만족도란 한 개인이 자신의 결혼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결혼안정성은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이 유지되는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안정된 결혼은 엄격히 말하면 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만 결혼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며, 불안정한 결혼은 한 배우자 혹은 양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종료시키는 결혼이다. 사망 외에 가장 보편적인 종료의 형태는 이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들은 최후의 이혼결정 전에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전의 비공식적 별거는 불안정한 결혼으로 볼 수 있다(Lewis & Spanier, 1979). 그후 Booth, Johnson과 Edward(1983)는 결혼불안정성을 결혼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보아, 결혼불안정성이란 낮은 결혼만족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도 아니고 결혼의 종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결혼불안정성을 '해체에 이르러 최후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지라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결혼을 부부가 와해시키려는 성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미숙, 1990; 김선영, 1990; 전춘애·박성연, 1993; 최연실,

1988). 그러므로 결혼안정성이란 현재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결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성향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4.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과의 관계

#### 1) 자아분화와 갈등 대처 행동

자아분화 수준과 역기능적인 행동에 관한 연구는 정신의학자나 심리 및 가족치료가에 의해 1970년 말부터 구체적으로 연구되었는데 주로 결혼만족도, 부부적응, 부부갈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Bowen(1976)은 자아분화는 정상 또는 비정상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을 보다 성공적으로 다루는가 혹은 그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하는가와 관계된다고 하였으며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독립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갈등에 직면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비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의존적이고, 긴장이나 갈등을 야기시키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자아분화 수준이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부부간의 갈등과 갈등 대처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여러 연구(금은순, 1996; 이신숙, 2000; 이창만, 1992; 전춘애, 1994; 제석봉, 1989; Feigal, 1985; Kear, 1978)에서 밝혀졌다. 즉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도 적으며 스트레스 발생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때 부부갈등이 많고 우울, 불안 등의 역기능적인 행동이 많이 발생하였다.

자아분화와 갈등 대처 행동을 연구한 이현주(1996)와 한미향(2000)은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갈등 대처 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처 행동인 이성적 대처 방안을 주로 사용하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회피 및 행동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대처 행동을 사용하여 문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개인 또는 부부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였다.

#### 2) 자아분화와 결혼 적응

자아분화 수준과 부부 적응 및 결혼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에 적응이 잘되며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은순, 1996; 김희수, 1993; 이신숙, 2000; 이창만, 1992; 전춘애, 1994; 제석봉, 1989; Feigal, 1985; Kear, 1978).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자아분화 수준과 결혼생활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신숙, 2000; 전춘애, 1994;

Laver, 1984; Mee-Gaik, 1991).

전춘애(1994)는 결혼안정성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편과 부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안정성은 높게 나타난 반면, 부인은 자신의 자아분화 수준과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kowron(1995)의 연구결과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 즉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가 낮고 자기 입장을 유지시킬 능력이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eifman(1986)은 정서적 단절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부관계에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따라서 결혼해체율이 높다고 하였다.

### 3)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 적응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 적응에 관한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보면, 갈등해결의 하위영역 설정에서 연구자들마다 측정된 영역들이 다르지만 연구결과의 일반적인 경향은 발견할 수 있다. 즉 갈등 대처 행동에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갈등 대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들의 갈등해결방식과 결혼만족과의 관련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갈등문제나 스트레스 정도는 결혼만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결혼불안정성, 우울증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김영희, 1999), 이성적 대처방안을 사용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고(김은정, 1992),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유은희, 1994; 최규련, 1995). 갈등 대처 척도를 사용하여 아내학대나 부부폭력에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병수(1999), 김정옥(1993), 전형미(1990), 손정영과 유영주(1998) 등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가 낮은 남편의 아내 학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국의 연구결과들을 살펴 보면, 갈등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할 경우, 부인이 갈등으로부터 회피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Heavy, Layne & Christensen, 1993), 궁정적인 방식을 사용할 경우(Bahr, 1989; Bowman, 1990)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들 차이점들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만한 결혼 적응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체적 폭력은 논쟁하는 측에서 그들의 목적이나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의 한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폭력은 갈등을 건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깨뜨리는 전형적인 신호이다(김정옥, 1993). 즉 갈등을 건설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부들에게는 결혼생활의 적응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01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기혼남성과 여성 각 50명씩 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남성 42부, 여성 42부 총 84부를 분석하였다. 예비조사를 토대로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검토하여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01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관공서나 학교, 아파트, 재래시장 등을 통해 배포하였고, 당일 또는 2-3일 후에 회수하였다.

남·여 각 400부씩 총 8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720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가운데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남성 332부와 여성 355부, 총 687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2. 조사도구

#### 1) 자아분화 척도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Skowron(1995)의 DSI 2 (Differentiation of Self Index 2)를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43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4문항을 제외한 총 39문항이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6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Skowron(1995)은 자아분화 수준의 높고 낮음을 파악하기 위해 중간 범위가 없는 6점 리커트형으로 본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Skowron의 의도대로 '보통이다'가 없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 요인별로 0.59~0.68의 신뢰도 값을 나타내었다. 본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vity)은 한 개인이 환경의 자극을 받으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의 정도와 반응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응답자가 보고한 그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문제수준의 정도(정서적 불안정성, 환경적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강도, 타인에 대한 과민성 등)를 평가한다. 이 하위척도에서 점수가 높으면 정서적 반응을 많이 하며, 자아분화가 낮음을 의미한다.

자기 입장(I position)은 '자신에 대한 생각(sense of self)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와 타인의 압력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신념을 견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반영한다. 다른 사람과 밀접한 관계로부터

터 떨어져 나와 있으면서도, 그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며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하위척도에서 점수가 높으면 자기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은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하여 방어하려는 행동들, 인간관계에서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행동, 자신의 감정들에 대한 부인 등을 반영한다. 이 하위척도에서 점수가 높으면 정서적 단절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아분화가 낮음을 의미한다.

타인과의 융합(fusion with others)은 모든 친밀한 관계의 정도를 예측하는 분화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반영한다. 이 척도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에 개입된 정도, 부모를 동일시하는 정도 즉 부모의 가치나 신념 또는 기대를 받아들이는 것 등을 타진한다. 이 하위척도에서 점수가 높으면 타인과의 융합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아분화가 낮음을 의미한다.

## 2) 갈등 대처 행동

갈등 대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등(1996)의 CTS 2(Conflict Tactics Scales 2) 척도를 번안하여 우리나라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손정영(1997)의 갈등 대처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음'에서 '1년에 12번 이상'으로, 경험이 있는 경우를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갈등 대처 행동 경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 요인별로 0.64~0.89의 신뢰도 값을 나타내었다. 본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갈등 대처 행동의 하위요인 중 협상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해결할 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이며, 심리적 공격은 갈등상황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 등으로 언어적·정서적 공격을 하는 것이며, 신체적 폭력은 갈등상황에서 육체적 힘이나 완력을 이용하여 갈등에 대처하는 것이며, 성적 강압은 협박이나 완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다.

## 3) 결혼 적응

결혼 적응의 정도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으로 구분하여 척도를 작성하였다. 결혼만족도는 Schumm 등(1985)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을 윤경자(199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KMS는 응답자가 자신의 결혼생활의 만족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만족도 등을 측정하며 총체적 결혼만족도를 측정(김득성, 1989; 정현숙, 1997; 윤경자, 1997)하는 것으로, 총 문항수는 3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에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에 7점까지 7

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 요인별로 0.93의 신뢰도 값을 나타내었다

결혼안정성은 Booth와 동료들(1983)이 개발한 결혼불안정성 척도(Marital Instability Index; MII)를 최연실(1988)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혼안정성 척도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는가 하는 정서적·인지적 평가에서부터 실제 이혼 제안한 적이 있는냐는 측면까지 포함하는 척도이다. 총 문항 수는 9개이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다'에 5점, '아주 많다'에 1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은 높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 요인별로 0.87~0.89의 신뢰도 값을 나타내었다.

<표 1>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척	도	문항수	남 성	여 성	전 체
자아 분화	정서적 반응	10	.68	.67	.68
	자 기 입 장	10	.59	.64	.61
	정서적 단절	11	.63	.67	.65
	타인과의 융합	8	.63	.59	.61
갈등 대처 행동	협 상	6	.81	.77	.79
	심리적 공격	8	.80	.79	.79
	신체적 폭력	11	.89	.87	.88
	성 적 강 압	4	.64	.74	.69
결혼 적응	결혼만족도	3	.93	.93	.93
	결혼안정성	9	.87	.89	.89

##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분화 수준,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ANOVA, Duncan의 사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 성		남 성		여 성	
변인	범 주	남 성	여 성	변인	범 주	남 성	여 성
연령	20 대	14 (4.2)	39(11.0)	교육 수준	중졸이하	33(10.0)	49(14.3)
	30 대	108(32.5)	151(42.5)		고 졸	106(32.2)	147(42.9)
	40 대	117(35.5)	113(31.8)		대 졸	141(42.5)	120(35.0)
	50대 이상	93(28.0)	52(14.6)		대학원 이상	49(14.9)	27(7.9)
직업 <sup>1)</sup>	전 문 직	56(17.8)	41(12.2)	가 족 수입	100만원이하	40(12.4)	38(11.5)
	중 급 직	188(59.9)	108(32.0)		101-200만원	157(48.8)	153(46.4)
	단 순 직	63(20.1)	35(10.4)		201-300만원	76(23.6)	81(24.5)
	무직/전업주부	7(2.2)	153(45.4)		301만원이상	49(15.2)	58(17.6)

※ 무응답자 제외한 백분율임

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결혼 적응의 일반적 경향이 <표 3>에 제시되고 있다.

<표 3>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결혼 적응의 정도 M(SD)

변 인		남 성	여 성	t 값
자아 분화	정서적 반응	3.76(.65)	3.88(.69)	-1.96*
	자 기 입 장	4.15(.58)	4.04(.62)	2.27*
	정서적 단절	3.26(.62)	3.26(.71)	.02
	타인과의 융합	4.30(.56)	4.20(.62)	2.20*
	총 자아분화	3.45(.33)	3.43(.37)	.95
갈등 대처 행동	협 상	1.81(.92)	1.81(.93)	-.32
	심리적 공격	.66(.63)	.60(.65)	1.22
	신체적 폭력	.21(.46)	.22(.48)	-1.06
	성 적 강 압	.34(.57)	.16(.49)	4.26***
결혼 적응	결혼만족도	5.22(1.29)	4.93(1.40)	2.82**
	결혼안정성	4.43(.52)	4.16(.67)	5.93***

\* p<.05 \*\* p<.01 \*\*\* p<.001

Bowen은 그의 연구에서 자아분화 수준을 0~100점의 수직 연속선이라 보고, 자아분화 점수가 50점 미만이면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 50~75점이면 자아분화 수준이 보통인 사람, 75점 이상이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하였다(김정택·심혜숙, 199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각 요인의 문항 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중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요인마다 문항 점수의 합을 요인별 문항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전체 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 하여 총 자아분화 수준을 구하였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남성의 자아분화는 57.6점, 여성의 자아분화는 57.3점으로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

이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남성 집단의 자아분화 수준과 여성 집단의 자아분화 수준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성의 평균점수가 여성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고현선, 1994; Skowron, 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금운순(1996), 이신숙(2000), 이창만(1992), 한미향(2000)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자아분화의 요인별에 있어서 정서적 반응은 여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남성이 낮았으며, 자기 입장, 타인과의 융합의 점수는 남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반응을 더 많이 하며 자기 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한 Skowron(199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인지 기능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고 한 이신숙(2000)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남성의 이성적 성향과 여성의 정서적 성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혼남녀의 갈등 대처 행동의 정도에 있어서 긍정적 대처 행동인 협상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 이현주(1996), 한미향(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조유리와 김경신(200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부정적 대처 행동인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적 강압에 있어서는 여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남성의 점수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서영(199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김병수(1999)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 정도에서 결혼만족도는 남성이 5.22점, 여성이 4.93점으로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안정성은 남성의 점수가 4.43점으로 여성의 결혼안정성 점수인 4.16점 보다 높아 남성의 결혼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전문직 : 전문직, 행정·관리직
- 중급직 :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 단순직 : 농·어업, 생산직, 운수직, 단순노무직

즉 기혼남성이 결혼 적응에 있어서 기혼여성보다 높은 적응을 하고 있다. 이 결과는 부부관계나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를 지적한 많은 연구들(고현선, 1995; 전춘애, 1994; 정현숙, 1997; 조유리·김경신, 2000; Bernard, 1982)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경험으로 존재하지 않아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인식을 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김명자, 1985).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부계우위의 전통이 남아있는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가정생활에 대한 자원투입과 비용이 크고 가정생활에서 갈등이 많은데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 3.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 결혼 적응의 정도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분화 수준을  $M \pm 1SD$ 를 기준으로 하여 자아분화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 + 1표준편차까지를 상, 평균 - 1표준편차까지를 하, 그 중간을 중, 3부분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의 차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의 차이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면 기혼여성의 경우,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은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 입장은 성적 강압에서,

타인과의 융합은 심리적 공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기 입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여성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부정적 대처 행동인 성적 강압을 많이 하고,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부정적 대처 행동인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Bowen(197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며, 자아분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Bowen 이론 적용에 대한 고찰을 연구한 이선휘(199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이다.

기혼남성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의 차이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남성의 경우, 정서적 반응과 자기 입장, 정서적 단절은 부정적 대처 행동인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강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타인과의 융합은 긍정적 대처 행동인 협상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즉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을 많이 하고 자기 입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낮은 남성 집단이 갈등 대처 행동으로 부정적 대처 행동인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강압을 더 많이 하며, 타인과의 융합이 높은 남성 집단이 갈등 대처 행동으로 긍정적 대처 행동인 협상을 많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적인 세계에 살고, 외부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의미 있는 지속적인 관계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Bowen(197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을 비교해 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아분화 수준이 갈등 대처 행동에 더 높은 관련성을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발달에 있어서 보살핌과 애착, 상호의

<표 4> 기혼여성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의 차이

M(SD)/D

변인	범주(n)	협상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강압
정서적 반응	상(56)	1.75(.97)	.69(.79)	.26(.41)	.13(.32)
	중(246)	1.78(.91)	.62(.62)	.22(.51)	.19(.55)
	하(52)	2.02(.96)	.45(.59)	.19(.42)	.07(.31)
	F 값	1.68	2.02	.33	1.45
자기 입장	상(55)	1.97(.84)	.56(.74)	.24(.68)	.04(.18) b
	중(247)	1.80(.95)	.60(.63)	.20(.41)	.17(.49) ab
	하(53)	1.73(.91)	.67(.66)	.30(.51)	.28(.68) a
	F 값	1.01	.37	.94	3.30*
정서적 단절	상(58)	1.83(1.08)	.75(.75)	.26(.54)	.23(.60)
	중(231)	1.78(.87)	.60(.63)	.24(.50)	.17(.50)
	하(66)	1.92(.96)	.49(.59)	.13(.31)	.07(.33)
	F 값	.47	2.59	1.53	1.70
타인과의 융합	상(55)	1.89(1.00)	.42(.52) b	.13(.37)	.10(.34)
	중(256)	1.85(.90)	.62(.66) ab	.22(.44)	.17(.49)
	하(44)	1.53(.91)	.73(.71) a	.33(.75)	.22(.66)
	F 값	2.46	3.04*	2.23	.72

\*  $p < .05$



존성 같은 관계성이 주요가치인 반면 남성발달에 있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 같은 분화가 주요한 가치로 여겨짐으로써 자아분화 자체가 여성의 영향보다는 남성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 적응의 차이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의 차이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여성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 적응의 차이를 보면, 정서적 반응과 자기 입장은 유의차가 없었으나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정서적 단절이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더 낮으며,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더 높았다.

<표 6>에서 보듯 기혼남성은 결혼만족도는 타인과의 융합을 제외하고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결혼안정성은 자아분화의 모든 하위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서적 반응이 높은 집단이, 자기 입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집단이, 정서적 단절이 높은 집단이,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가 낮은 집단이 결혼안정성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와 결혼 적응이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결혼 적응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남녀 모두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나 Bowen의 이론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선헌(1998)가 그의 연구를 통해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한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발달한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이 현대 한국에 전적으로 적용되리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음을 강조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4. 기혼남녀의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대한 영향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자아분화가 기혼남녀의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연령, 교육수준, 가족수입, 직업유무)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의 차이나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유의한 차이나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부록 1>과 같다. 변인 중 직업유무(직업 유=1, 직업 무=0)는 명목변수이므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거기에다 자아분화의 각 하위요인을 첨가시켜 분석하였다.

1) 갈등 대처 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갈등 대처 행동에 대한 자아분화 하위요인 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긍정적 대처 행동인 협상은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15%이며, 연령( $\beta = -.24$ )과 교육수준( $\beta = .24$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분화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19%로 증가하였으나 영향 변인은 연령( $\beta = -.25$ )과 교육수준( $\beta = .25$ )으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기혼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갈등 대처 행

<표 5> 기혼남성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의 차이

						M(SD)/D
변인	범주(n)	협상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강압	
정서적 반응	상 (47)	1.60(.94)	.98(.77) a	.39(.61) a	.43(.51) a	
	중(222)	1.84(.91)	.64(.57) b	.20(.44) b	.36(.60) ab	
	하 (63)	1.96(.86)	.52(.63) b	.16(.37) b	.18(.41) b	
	F 값	2.43	8.00***	3.92*	3.23*	
자기 입장	상 (48)	1.64(.87)	.55(.54) b	.14(.30) b	.16(.34) b	
	중(236)	1.89(.91)	.61(.56) b	.19(.41) b	.34(.56) ab	
	하 (48)	1.62(.95)	1.02(.85) a	.45(.69) a	.49(.70) a	
	F 값	2.63	9.94***	7.70***	4.21*	
정서적 단절	상 (60)	1.68(.99)	.92(.73) a	.39(.65) a	.58(.77) a	
	중(216)	1.80(.94)	.61(.58) b	.18(.40) b	.29(.50) b	
	하 (56)	1.97(.74)	.58(.64) b	.20(.46) b	.29(.50) b	
	F 값	1.46	6.49**	5.33**	6.63***	
타인과의 융합	상 (58)	2.13(1.01) a	.53(.48)	.17(.29)	.26(.41)	
	중(227)	1.77(.88) b	.68(.66)	.22(.48)	.37(.62)	
	하 (46)	1.62(.91) b	.75(.61)	.30(.52)	.28(.44)	
	F 값	4.69**	1.83	1.02	1.21	

\* p<.05 \*\* p<.01 \*\*\* p<.001

<표 6>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 적응의 차이

M(SD)/D

변인	여 성			남 성		
	범주(n)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	범주(n)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
정서적 반응	상 (55)	5.17(1.45)	4.07( .67)	상 (47)	4.84(1.50)	4.19( .64) b
	중(239)	4.85(1.42)	4.14( .69)	중(220)	5.28(1.26)	4.47( .48) a
	하 (52)	5.02(1.24)	4.34( .55)	하 (63)	5.33(1.16)	4.50( .49) a
	F 값	1.26	2.38	F 값	2.46	6.16**
자기 입장	상 (53)	5.14(1.36)	4.15( .69)	상 (48)	5.40(1.28)	4.58( .44) a
	중(242)	4.90(1.43)	4.17( .65)	중(235)	5.27(1.29)	4.44( .50) a
	하 (53)	4.89(1.31)	4.14( .76)	하 (47)	4.81(1.26)	4.26( .63) b
	F 값	.65	.06	F 값	2.96	4.59**
정서적 단절	상 (57)	3.96(1.36) c	3.81( .76) c	상 (66)	4.96(1.08)	4.19( .51) b
	중(226)	5.00(1.30) b	4.16( .65) b	중(231)	5.24(1.31)	4.48( .50) a
	하 (63)	5.53(1.36) a	4.48( .49) a	하 (58)	5.44(1.38)	4.54( .50) a
	F 값	21.37***	16.32***	F 값	2.10	9.32***
타인과의 융합	상 (54)	5.67(1.26) a	4.43( .49) a	상 (58)	5.89(1.13) a	4.66( .39) a
	중(251)	4.80(1.41) b	4.13( .68) b	중(223)	5.21(1.21) b	4.40( .53) b
	하 (43)	4.78(1.20) b	4.04( .72) b	하 (46)	4.45(1.42) c	4.33( .49) b
	F 값	9.27***	5.45**	F 값	17.71***	6.98***

\*\* p<.01 \*\*\* p<.001

동으로 협상을 많이 하였다.

한편 부정적 대처 행동인 심리적 공격은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단지 2%에 불과했고 영향변인도 연령( $\beta=.13$ ) 뿐이었으나 자아분화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8%로 증가하였으며 타인과의 융합( $\beta=-.16$ ), 정서적 반응( $\beta=.15$ ), 정서적 단절( $\beta=.13$ )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은 타인과의 융합이 낮을수록, 정서적 반응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폭력과 성적 강압은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0%이며 영향 변인도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해 자아분화 요인

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4%이었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신체적 폭력은 정서적 단절( $\beta=.13$ )과 타인과의 융합( $\beta=-.13$ )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강압은 정서적 단절( $\beta=.19$ )과 자기 입장( $\beta=-.13$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폭력은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많이 하였으며, 성적 강압은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자기 입장이 낮을수록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갈등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볼 때, 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이며, 심리적 공격은 연령과 타인과의 융

<표 7> 기혼여성의 갈등 대처 행동에 대한 자아분화 하위요인의 영향력

통제 변수	협 상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강압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연 령	-.24***	-.25***	-.15**	-.16**	-.07	-.10	.00	.00
교 육 수 준	.24**	.25***	.01	.01	-.02	-.02	.01	.00
정서적 반응		-.04		.15*		.08		.05
자 기 입 장		.09		-.02		-.06		-.13*
정서적 단절		-.06		.13*		.13*		.19**
타인과의 융합		.10		-.16*		-.13*		-.02
F-value	30.70***	12.78***	4.09*	4.93***	.74	2.44*	.01	2.38*
R2 Change		.04		.06		.04		.04
R2	.15	.19	.02	.08	.00	.04	.00	.04
Durbin-Watson	2.10		1.98		2.04		1.94	

\* p<.05 \*\* p<.01 \*\*\* p<.001

합이, 신체적 공격은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이, 성적 강압은 정서적 단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기혼남성의 갈등 대처 행동에 대한 자아분화 하위요인간의 영향력이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을 보면 독립변수 중 통제 변수가 종속변수인 협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낸 1단계에서는 기혼남성의 연령( $\beta = -.24$ )과 교육수준( $\beta = .17$ ), 직업유무( $\beta = .11$ )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 변수의 설명력은 13%였다. 여기에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이 첨가되면서 기혼남성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beta = -.26$ )과 교육수준( $\beta = .19$ ), 타인과의 융합( $\beta = .16$ )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인의 설명력은 19%였다. 즉 기혼남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갈등 대처 행동으로 협상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정적 대처 행동인 심리적 공격은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2%에 불과했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beta = -.13$ )뿐인 반면 자아분화의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15%가 증가해 17%를 나타내었으며 정서적 반응( $\beta = .24$ )과 자기 입장( $\beta = -.22$ ), 연령( $\beta = -.16$ )이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정서적 반응이 높을수록, 자기 입장이 낮을수록 갈등 대처 행동으로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은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0%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전혀 없었던 반면 자아분화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이 10%로 증가했으며 자기 입장( $\beta = -.21$ )과 정서적 반응( $\beta = .20$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성은 자기 입장이 낮을수록, 정서적 반응이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였다.

성적 강압에 대해서는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1%에 불과했고 영향변인도 없었던 반면 자아분화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9%를 나타내었고 자기 입장( $\beta = -.19$ )과 정서적 단절( $\beta = .19$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성은 자기 입장이 낮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성적 강압을 많이 하였다.

기혼남성의 갈등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볼 때, 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이며, 심리적 공격은 정서적 반응이, 신체적 공격은 자기 입장이, 성적 강압은 자기 입장과 정서적 단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2) 결혼 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에 대한 자아분화 하위요인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5%로 연령( $\beta = -.14$ )과 교육수준( $\beta = .13$ )이 영향을 미친 반면 자아분화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24%로 증가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 $\beta = -.38$ ), 타인과의 융합( $\beta = .27$ )과 교육수준( $\beta = .15$ )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안정성은 통제변인이 단지 1%에 불과했고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도 없었던 반면 자아분화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17%가 증가해 18%를 나타내며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 $\beta = -.32$ )과 타인과의 융합( $\beta = .25$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결혼안정성은 높

<표 8> 기혼남성의 갈등 대처 행동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통제 변수	협 상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강압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연 령	-.24***	-.26***	-.13***	-.16**	.01	-.01	.02	.01
교 육 수 준	.17**	.19***	.00	.00	.03	.04	.06	.09
직 업 유 무	.11*	.08	.07	.06	-.01	-.01	.04	.03
정서적 반응		-.08		.24***		.20**		.08
자 기 입 장		.03		-.22***		-.21***		-.19**
정서적 단절		-.11		.10		.05		.19**
타인과의 융합		.16*		-.09		-.06		.02
F-value	15.24***	9.84***	2.34	8.77***	.10	5.00***	.55	7.14***
R2 Change		.06		.15		.10		.08
R2	.13	.19	.02	.17	.00	.10	.01	.09
Durbin-Watson	1.78		1.86		2.02		2.12	

\*\* p<.05 \*\* p<.01 \*\*\* p<.001

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결혼 적응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볼 때,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단절이었다.

<표 9>에서와 같이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는,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4%이며 연령( $\beta = -.13$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반면 자아분화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21%로 증가했으며,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타인과의 융합( $\beta = .38$ )과 정서적 단절( $\beta = -.14$ ), 연령( $\beta = -.14$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은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0%로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해 자아분화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17%로 증가하며 영향변인도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 $\beta = -.24$ ), 자기 입장( $\beta = .19$ ), 타인과의 융합( $\beta = .18$ )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입장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기혼남성의 결혼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의 결혼 적응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볼 때,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과의 융합이었고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단절이었다.

이와 같이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에 미치는 변인은 자아분화로써 배경변인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반면, 자아분화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이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고, 남녀 모두 자아분화 수준 변인의 설명력이 높은 점을 볼 때 결혼 적응에 있어서 자아분화 수준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Bowen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기혼남녀의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아분화 수준이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서구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아분화의 개념이 여전히 가족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며,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남성 332명과 여성 355명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와 ANOVA, Duncan의 사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요약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분화 수준은 남녀 모두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총 자아분화 수준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분화의 요인 별에 있어서 정서적 반응은 남성이 더 낮았으며, 자기 입장과 타인과의 융합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또한 갈등 대처 행동은 성적학대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결혼 적응의 정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둘째,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자기 입장이 낮은 집단이 성적 강압을 많이 하고, 타인과의 융합이 낮은 집단이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정서적

<표 9>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여 성				남 성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	
통제 변수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연 령	-.14*	-.08	.01	.06	-.13*	-.14*	.03	.03
교 육 수 준	.13*	.15**	.08	.08	.11	.10	-.05	-.07
정서적 반응		.01		-.11		-.09		-.12
자 기 입 장		.03		-.06		.06		.19***
정서적 단절		-.38***		-.32***		-.14*		-.24***
타인과의 융합		.27***		.25***		.38***		.18**
F-value	8.19***	16.77***	.93	11.71***	6.46**	14.33***	.59	10.90***
R2 Change		.19		.17		.16		.17
R2	.05	.24	.01	.18	.04	.21	.00	.17
Durbin-Watson	1.88		2.14		2.01		2.07	

\* p<.05 \*\* p<.01 \*\*\* p<.001

반응과 정서적 단절을 많이 하고 자기 입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집단이 갈등 대처 행동으로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강압을 더 많이 하며, 타인과의 융합이 높은 집단이 갈등 대처 행동으로 협상을 많이 하였다. 특히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여성의 영향력보다는 남성의 자아분화가 갈등 대처 행동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정서적 단절이 낮은 집단과 타인과의 융합이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는 타인과의 융합이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결혼안정성은 정서적 반응이 높은 집단이, 자기 입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집단이, 정서적 단절이 높은 집단이,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가 낮은 집단이 더 낮았다.

셋째, 기혼남녀의 갈등 대처 행동에 대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의 경우 협상은 연령과 교육수준의 효과만 있었으며, 심리적 공격은 연령과 타인과의 융합이, 신체적 공격은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이, 성적 강압은 정서적 단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기혼남성의 경우 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이며, 심리적 공격은 정서적 반응이, 신체적 공격은 자기 입장이, 성적 강압은 자기 입장과 정서적 단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에 대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단절이었다.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입장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과의 융합이었고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기혼남녀의 갈등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긍정적 대처 행동인 협상의 경우는 배경변인의 영향력이 컸지만 부정적 대처 행동인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강압의 경우는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여성은 정서적 단절이, 남성은 자기 입장이 갈등 대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또한 결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분화로서 배경변인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반면, 자아분화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과 타

인과의 융합이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 2. 논의 및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의 전반적인 자아분화 수준은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나 정서적 반응은 여성이 더 높았으며, 자기 입장과 타인과의 융합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의 정서적 성향과 남성의 이성적 성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갈등 대처 행동에 있어서도 성차가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나, 결혼 적응에 있어서는 확실한 성차가 나타나 기혼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결혼 적응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경험으로 존재하지 않아 기혼남성은 독신남성보다 더 심리적으로 건강을 누림에 비하여 기혼여성보다 더 심한 우울증과 근심을 경험하고 더 심각한 신경증세를 보이는 것을 근거로 결혼은 남자에게 있어서 좋은 만큼 여자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아내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시각(이성희, 1996)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에 대해서 기혼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둘째,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을 비교해 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아분화 수준이 갈등 대처 행동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사회화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지적한 Gilligan(1982)의 인간발달 이론을 근거로 여성발달은 관계성을 중시하고 남성발달은 분리나 자율성, 독립성 개념을 중시하여 나타나는 경향성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자아분화의 개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을 동일한 잣대로 연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자아분화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대처 방안보다는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사용하며,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여성보다 기혼남성에게 더 두드러지는 결과였다. 특히 결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경변인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반면, 자아분화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이 기혼남녀의 결혼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아분화 정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처 행동을 많이 하고, 부정적 대처 행동을 적게 하며, 결혼 적응에 있어서도 더 높은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Bowen의 이론과 차이를 보

였다. 이는 개인주의가 바탕이 된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발달한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이 우리나라 사회에 전적으로 적용되리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음을 강조한 연구(이선희, 1998)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양문화권에서 이상적인 자아는 성장 후 가족이라는 친밀한 환경을 떠나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그려지는 반면 우리 문화에서 바람직한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것이 덕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본질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분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향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Kim & Choi, 1994) 성장의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는 개인의 독립과 분리보다는 타인과의 융합이라는 방향성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국문화에서 성숙한 인간이란 타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되며 가족과의 관계는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적 차원에서 "분화"가 갈등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도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처 행동을 주로 하고, 결혼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분화의 척도보다는 오히려 통합의 척도라는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더 부합된다는 시각(이선희, 1998)이 본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입증된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문화에서 자아분화의 개념적 적용을 위해서는 자아분화에 대한 개념적·조작적 정의에 대한 더 심층적인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은 미국 백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모델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자아분화 척도들이 Bowen의 가족치료이론의 8가지 주요 개념들을 서로 연동적이거나 중복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측정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Skowron(1995)의 자아분화 척도는 Bowen이 말한 자아분화의 두가지 축을 포함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아분화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위한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남성과 여성으로 한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기혼남성과 여성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기혼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표집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 2001년 1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2월 1일

## 【참 고 문 헌】

- 고현선(1994). 부부의 자아분화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금은순(1996).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연구, 24.
- 김병수(1999).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과 경험.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77-95.
- 김은정(1992). 결혼초기 주부의 역할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1993). 부부 폭력에 대한 가정관리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1(2), 27-39.
- 김정택·심혜숙(1993). 자아분화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의 특징.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창간호, 31-35.
- 손정영(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2)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도 연구-남편의 갈등대처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51-87.
- 손정영·유영주(1998).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2), 145-160.
- 유은희(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도시부부가족의 문제연구. 한국가족상담 교육연구소 개소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제1권(통권1호).
- 윤경자(1997).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 두 이론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5(4), 31-46.
-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이선희(1998). 한국에서의 Bowen 이론적응에 대한 고찰 : 자아분화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2), 151-176.
- 이성희(1996). 미혼남녀가 인식하는 부부관계 개념의 성(性)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84-88.
- 이신숙(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23-43.
- 이영숙(1986). 한국 도시가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부인학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창만(1992).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6).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서영(1995). 부부간의 심리적,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217-230.
-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조유리·김경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광주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2.
- 조은경(2001). 가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연실(1988).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숙(1992). 자아분화 척도의 요인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1). www.nso.go.kr
- 한미향(2000).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hr, S. J.(1989). Family interaction.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bernard, J.,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ur : Yale University Press.
- Bernard, J.(1982). The future of marriage, New Haven : Yale Univ. Press(2nd Ed).
- Booth, A., Johnson, D. R., & Edward, J. N.(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87-394
- Bowen, M.(1976). Therap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en.
- Bowman, M. L.(1990). Coping efforts and marital satisfaction, measuring marital coping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463-474.
- Feigal, T. J.(1985).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Iowa.
- Heavy, C. L., Layne, C. &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Kear, J.(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of Psychology, Fresno Campus.
- Kim, Uichol, & Choi, Soo-Hyang(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R. R.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Lewis, R. A. & Spanier, G. 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lilty of marriage, I. W. R, Burr et a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New York : Free Press.
- Mee-Gaik, Ng.(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y like, healthy unlike, unhealthy like, unhealthy unlike. Unpublish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Reifman, A.(1986). Emotional cut-off and the qualities of intimate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S International Univ, Ph. D.
- Scanzoni(1979).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 Free.
- Skowron, E. A.(1995).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Construct Validation and Test of Bowen Theory, Dissertation, The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Spanier, G. 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ra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부록 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수준과 갈등대처 행동, 결혼적응과의 상관관계

	정서적 반응	자기 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협 상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강압	결혼 만족도	결혼 안정성
1. 정서적 반응		-.04	.43***	.29***	-.12*	.16**	.07	.01	-.05	-.15**
2. 자 기 입 장	.00		.16**	.32***	.04	-.07	-.04	-.15**	.03	-.01
3. 정서적 단절	.47***	.08		.17***	-.07	.15**	.13*	.13*	-.34***	-.33***
4. 타인과의 융합	.28***	.41***	.11		.15**	-.09	-.10	-.07	.24***	.17**
5. 협 상	-.13*	.06	-.10	.17**		-.28***	-.12*	-.08	.08	-.04
6. 심리적 공격	.22***	-.25***	.17**	-.12*	-.28***		.64***	.25***	-.28***	-.47***
7. 신체적 폭력	.17**	-.23***	.12*	-.12*	-.17**	.69***		.42***	-.27***	-.43***
8. 성 적 강 압	.18***	-.16**	.19***	-.01	-.20***	.32***	.44***		-.18***	-.19***
9. 결혼만족도	-.08	.21***	-.16**	.35***	.18***	-.23***	-.25***	-.14***		.59***
10. 결혼안정성	-.17**	.26***	-.26***	.20***	-.12*	-.49***	-.46***	-.30***	.45***	

\* p<.05 \*\* p<.01 \*\*\* p<.001

(대각선 아래는 기혼남성, 대각선 위는 기혼여성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임)